

중기 협동조합 설립 문턱 낮췄다...신산업 조직화 '속도'

발기인 요건, 지방 30→20명 완화...설립도 5개로 줄여 광주 AI 분야 '지방 첫 사례'...전남, 신재생에너지 중심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발기인 요건 완화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신산업 분야 조직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전히 인허가 중심의 '허가제' 구조가 유지되는 만큼 실제 설립 확대 여부는 현장 체감과 후속 규제 개선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전국조합은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됐다. 또 '소매업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요건도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줄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과제로,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진 결과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구매·판매, 생산설비 구축, 물류시스템 운영, 공동 연구개발(R&D) 등 개별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대표적인 협업 플랫폼으로, 현재 약 900개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전남지역 산업 구조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협동조합은 총 53개다. 세부적으로 광주 27개, 전남 26개 수준이다. 이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세종(34개)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대구(53개)와 비교하면 추가 확대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이 '허가제'로 운영되면서 발기인 수 확보와 인허가 절차가 주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업종 내 기업 수가 적고, 기업인들이 현업에 종사하는 특성상 일정 규모 이상으로 모이기 어려워 설립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기인 요건 완화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는 관련 분야를 비롯해 모빌리티 분야 협동조합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AI 관련 협동조합은 서울시에만 1개 존재하며 지방에는 없는 상황이다.

향후 광주에서 AI 협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지방 최초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산업계의 공동 대응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남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농식품 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기존

요건 하에서도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제도 완화를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협동조합 설립이 여전히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공급망 대응, 판로 확대, 인력 확보 등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공동으로 풀 수 있는 '구조'라며 "요건 완화를 계기로 지역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업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경총, AI 기업-청년 연결...인재매칭 강화

내달 8일까지 'AI일자리잡고+ 원스톱 지원' 참여기업 미스매치 해소·장기근속 유도...기업당 최대 1000만원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가 광주 북구 AI 산업 기반 기업의 인재 확보와 취업 연계를 위한 '광주 AI 일자리잡고+ 원스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 산업 성장에 따라 확대되는 인력 수요와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업과 구직자 간 실질적인 연결을 강화하고, 채용 이후 정착까지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원 대상은 광주 북구 소재 AI 산업 기반 기업 가운데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생산제품 개선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1인당 250만원,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총 1000만원 이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5개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단순 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우수기업 발굴, 맞춤형 일자리 매칭, 장기근속 유도, 조직문화 개선까지 전 과정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근로환경이 우수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홍보를 위한 마케팅 영상 제작을 지원해 기업 이미지 제고와 함께 우수 인재 유입 기반을 강화한다. 또 신규 채용 인력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커피차지

원이나 영화 관람 등 문화행사를 통해 조직 내 소통 활성화와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기 채용을 넘어 장기적인 고용 유지와 조직 안정성 확보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지역 AI 산업이 기술 개발 중심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 적용과 고용 창출로 확산되는 전환점에 있다"며 "이번 사업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이며, 사업 공고 및 신청 서류는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사업부(062-608-996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소진공, 소상공인 생명 안전망 본격 구축 '천명지킴 프로젝트' 참여...건강한 재기 돕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2026년 천명지킴 발대식'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천명지킴 프로젝트'는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장관 김부겸)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시각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한 범국가적 캠페인이다.

소진공은 이번 발대식에서 자살 고위험 7대 타겟(50대 남성, 미취업청년·대학생, 농촌 노인, 학생·학교밖청소년, 북한민, 군장병, 연예인) 중 하나인 '50대 남성' 분야의 '천명수호처'로 위촉돼 기관 고유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살 예방 관련 사업을 기획·운영한다.

이에 맞춰 소진공은 천명수호처로서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심리회복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자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휴·폐업(예정) 소상공인과 동반 가족은 전국 국립산림치유원 및 숲체원 등에서 숙박형, 당일형 등 치유프로그램을 연간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총 150회, 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생명 존중 안심마을'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경영 악화로 심리적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천명지킴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든든한 '생명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건강한 재기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j1404@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된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은행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청년소통 확대”

지역 밀착형 브랜드 콘텐츠 제작·ESG 활동 2008년 1기 시작 이후 500여명 수료자 배출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된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학생 홍보대사는 오는 5월부터 10월 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며, 광주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청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매일 소정의 활

동비와 단체복이 지원되며,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 팀과 개인을 선정해 별도의 포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 맞춤형 브랜드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 소통, 지역 내 소외계층 대상 ESG사회공헌활동, 메세나(문화·예술·스포츠) 연계 활동,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활동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대학생 홍보대사는 단순한 홍보활동을 넘어 광주은행이 지역과 함께 걸어가는 가치를 가장 가까이에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진정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광주은행의 미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2008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500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대학생 대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